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음 6월 3일) 제23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21대 총선... 전북 정치권 향방 - 중

평화당, '인물론' 으로 승부

글 쓰는 순서

- 상·특정 정당만 짚어 온 전북 민심
- 중·평화당, '인물론' 으로 승부
- 하·내년 총선, 전북 정치 시금석 '죽목'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양자 대결 속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평화당은 전북지역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핵심지역으로 총 6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제압하고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를 위해 평화당은 현역 중심 중진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보다 빠르게 후보자를 내세워 새로운 공약 발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내부적으로 전주갑은 김광수, 전주을 박주현,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완전무장'에 들어갔다.

익산들은 4선 경륜의 조배숙, 정

음·고창은 유성엽, 김재·부안은 김중회 의원이 '출발선'에 발을 얹었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출격준비'를 마쳤다.

정동영 대표는 "평화당은 전북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이미 후보군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인물론에서

당내 갈등 본질은 당권파(정동영)와 비당권파(박지원, 유성엽) 사이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 대표를 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자강론'을 앞세운다.

먼저 당력을 강화하고 이후 제3의 길을 모색해 총선에 임하지는 것이다.

하지만 유성엽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신당

김광수·박주현·정동영 등 현역 '완전무장'

선거 앞둔 상황 속 당내 갈등 문제점으로 남아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지지율이 낮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이유다.

그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당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정 대표가 지난달 10일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을 창당하는 '제3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 창당과 본격적인 정치적 활동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며 "2020년 총선 '선거 구도'는 양자 구도 또는 다자 구도 여부가 결정적 변수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군산시, 전국 첫 공공배달앱 시스템 구축

이용 수수료 'No' ... 26일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시작 목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 앱 시스템 일명 '배달의 명수' 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로 인해 민간 배달 앱을 사용했다.

이에 군산시는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전혀 없는 공공배달 앱을 구축해 운영기로 결정 현재 배달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입찰 중이다.

시는 오는 26일 제1차 평가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해 금년 하반기 중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간소비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달의 명수'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치킨, 피자, 족발 등 원하는 음식을 주문·결제하고 소상공인은 주문내역 확인 후 조리 및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가입축하 포인트를 지급하며 특히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음식 주문시 10% 할인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 자율참여를 통한 최저가 제도, 반값데이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개발된 공공배달앱을 수수료 없이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비치된 기존 POS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함께 개발 및 설치해준다.

특히, 소비자 민원사항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고객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이밖에 공공배달앱 우수 업소를 선정해 홍보 및 집기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처럼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다. /군산=김정훈 기자



'모두가 함께 손가락 하트' ...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북도-국회의원-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손가락 하트를 내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국 최초 시행' 고도화사업 지원 효과 '톡톡'

도, 마을기업 36개 매출액·고용인원 등에서 큰 성과 거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전북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소 마을기업에 고도화 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액, 고용인원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과만족도, 자금활용, 사업성과도 등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결과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기업들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고도화를 통해 성장한 마을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과 예산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2개 분야로 기계·장비 구

축, 관료개혁 및 마케팅 그리고 식품 제조에 필수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는 일반사업에 대해 각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10개소에 지원하고, 마을기업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품질개선사업에는 각 2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품질개선사업에는 시군과 마을기업,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통해 사업성,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간 또는 시군단위의 연계·공동사업 유도로 마을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해 일자리를 얻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기업 아카데미, 마을기업 컨설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11개소의 마을기업 지정과 4개소 예비마을기업 선정 및 고도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우리 동네 이야기

'마을조사서' 완성

전주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

곳곳에 숨겨진 우리 동네 이야기를 담은 '마을조사서'가 완성돼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마을조사서는 시와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심(洞心)찾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각 동의 역사와 생태, 문화자원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마을에 대한 기억을 구술 채록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마을조사서는 여타 학술조사 형식의 기록과는 달리 주민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잊혀질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는 마을조사서를 활용해 올해부터 마을조사 양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 마을조사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의 '전주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